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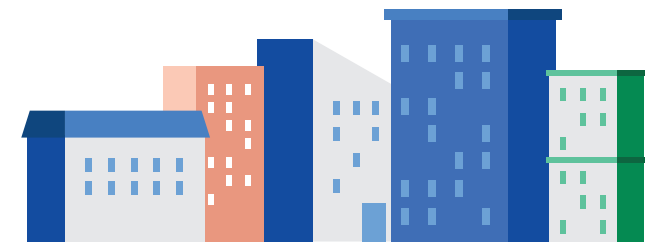
2023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보고서



2023 Report on the Status of
Mental Health Institutions in Seoul

2023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보고서

2023 Report on the Status of
Mental Health Institutions in Seoul



목차

I. 추진 개요	1
II.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5
1. 전체 현황	6
1) 기관 현황	6
2) 인력 현황	8
3) 예산 현황	9
2.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	12
1) 정신의료기관	12
1-1)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	12
1-2) 정신의료기관 병상 현황	15
1-3) 정신의료기관 환자 현황	17
1-4) 정신의료기관 인력 현황	19
2) 정신요양시설	20
2-1) 정신요양시설 기관 현황	20
2-2) 정신요양시설 예산 현황	21
2-3) 정신요양시설 인력 현황	22
2-4) 정신요양시설 등록자 현황	23
3) 정신재활시설	24
3-1) 정신재활시설 기관 현황	24
3-2) 정신재활시설 예산 현황	26
3-3) 정신재활시설 인력 현황	28
3-4)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현황	30

3. 지역사회재활기관 현황	32
1)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33
1-1)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	33
1-2)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	33
2)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35
2-1)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	35
2-2)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	35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8
3-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 현황	38
3-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현황	39
4) 자살예방센터	40
4-1) 자살예방센터 예산 현황	40
4-2) 자살예방센터 인력 현황	41
4.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현황	42
1) 자립생활주택	42
1-1) 자립생활주택 기관 현황	42
1-2) 자립생활주택 예산 현황	43
1-3) 자립생활주택 인력 현황	44
1-4)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현황	44
2) 지원주택	45
2-1) 지원주택 기관 현황	45
2-2) 지원주택 예산 현황	46
2-3) 지원주택 인력 현황	47
2-4) 지원주택 입주자 현황	48

III. 결론 및 고찰	49
--------------	----

IV. 참고자료	51
----------	----

표목차

<표 1>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2021~2023)	6
<표 2> 권역 및 자치구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2023)	7
<표 3>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전체인력 수(2021~2023)	8
<표 4>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수(2021~2023)	9
<표 5>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기관유형별 세입예산(2021~2023)	10
<표 6>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재원출처별 세입예산(2021~2023)	10
<표 7>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기관유형별 세출예산(2021~2023)	11
<표 8>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성질별 세출예산(2021~2023)	11
<표 9>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2011~2023)	12
<표 10> 설립 구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2021~2023)	13
<표 11> 기관 구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2021~2023)	13
<표 12> 자치구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2021~2023) 및 인구 10만 명당 현황(2023)	14
<표 13> 총 입원병상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수 및 보유율 현황(2018~2023)	15
<표 14>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유형별 현황(2018~2023)	15
<표 15> 자치구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현황(2021~2023) 및 인구 10만 명당 현황(2023)	16
<표 16> 정신의료기관 일 평균 외래 및 낮병동 환자 현황(2021~2023)	17
<표 17> 기관 구분별 정신의료기관 일 평균 외래환자 현황(2023)	17
<표 18> 질환별 및 입원유형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현황(2019~2023)	18
<표 19>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인력 현황(2019~2023)	19
<표 20> 기관 구분별 정신의료기관 인력 현황(2023)	19
<표 21> 정신요양시설 기관 및 정원 현황(2021~2023)	20
<표 22> 정신요양시설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21
<표 23>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현황(2021~2023)	22
<표 24> 이용기간별 정신요양시설 등록자 수 및 독립생활 가능 여부 현황(2021~2023)	23
<표 25> 기관 유형별 정신재활시설 기관 현황(2021~2023)	24
<표 26> 권역 및 자치구별 정신재활시설 기관 현황(2023)	25
<표 27>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세입예산 현황(2021~2023)	26

<표 28>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세입예산의 재원출처 현황(2023)	26
<표 29>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세출예산 현황(2021~2023)	27
<표 30>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2023)	27
<표 31>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인력 현황(2021~2023)	28
<표 32>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및 비율 현황(2021~2023)	28
<표 33>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인력의 직종 현황(2023)	29
<표 34>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및 정원충족률 현황(2021~2023)	30
<표 35>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이용기간 현황(2023)	31
<표 36>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독립생활 가능 여부 현황(2023)	31
<표 37> 지역사회재활기관 기관유형별 운영형태(2023)	32
<표 38>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33
<표 39>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34
<표 40>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35
<표 41>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36
<표 42> 운영형태별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37
<표 4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38
<표 4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39
<표 45> 자살예방센터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40
<표 46> 자살예방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41
<표 47> 자립생활주택 기관 및 정원 현황(2021~2023)	42
<표 48> 자립생활주택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43
<표 49> 자립생활주택 인력의 직종 현황(2021~2023)	44
<표 50> 이용기간별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수 및 독립생활 가능 여부 현황(2021~2023)	45
<표 51> 지원주택 기관 현황(2021~2023)	46
<표 52> 지원주택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46
<표 53> 지원주택 인력의 직종 현황(2021~2023)	47
<표 54> 이용기간별 지원주택 입주자 수 및 독립생활 가능 여부 현황(2021~2023)	48

I. 추진 개요



I 추진 개요

1. 배경

정신건강서비스는 예방과 조기개입, 치료와 보호, 재활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정신질환의 증상 및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스펙트럼 내의 각 단계마다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요구된다.

서울시 내에는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설치되어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중독 질환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위기상담전화 등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살예방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공의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예방부터 재활까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로 분류되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하여 치료와 요양,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적 서비스를,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정신재활 및 사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을 별도 운영하며, 정신질환 당사자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 내에는 각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다양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는 정신응급의료센터의 부족, 정신재활시설의 부족,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 및 주거의 어려움 등 사회적 인프라가 턱없이 미흡하다. 최근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의 총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증가로 다른 유형의 서비스 제공기관, 특히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의 공급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증가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에 반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 변화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인식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 내에 있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정신건강 인프라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 목적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현황 및 변화추이 등 정신건강 사업 수행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서울시 정신건강 사업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3. 방법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결과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기관 유형을 범주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건강사업 안내서, 국가정신건강현황조사 내 기관 정의와 분류체계를 참조하였다.

1)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비를 지원받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4차시 조사를 통해 2023년 현황조사가 완료되었다. 해당 자료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설치 현황부터 예산, 인력, 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의 시계열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분석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9년부터 서울시 협조를 통해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받아 이를 분석하여 근거 기반의 서울시 정신건강사업 운영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현황, 병상 현황, 종사자 현황, 환자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시계열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 정신건강 관련 기관 유형

본 보고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크게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역사회재활기관',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 분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지역사회재활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활용 시 유의사항]

- ◆ 본 보고서는 조사응답자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무응답·오기입 등의 이유로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
- ◆ 권역별 현황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한 자료에 해당함.
 - 동북권(8개 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 동남권(4개 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 서북권(6개 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 서남권(7개 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 인구 1인당, 인구 1,000명당, 인구 10만 명당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인구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해당연도 4분기 총 인구수를 활용하였음(통계청, 서울특별시(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 ◆ 이직률(Turnover Rate)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의 산식(이직자 수 ÷ 전기 말 근로자 수)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음.
- ◆ 제시된 수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본 자료 중 일부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의 '시점 자료'이며, 일부는 연간 현황을 반영한 '기간 자료' 이므로 활용 시 유의를 요함.
- ◆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광역형 자살예방센터의 현황만을 포함함.
- ◆ 본 보고서는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함.
 - 서울시정신건강통계(<https://seoulmentalhealth.kr>)
 - 블루터치(<https://blutouch.net>)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1. 전체 현황

1) 기관 현황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전체 기관 수는 2023년 기준 789개소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 사회재활기관의 수는 30개소로 3개년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변화 추이가 두드러진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대비 2023년 15.2% 증가하여 전체 기관의 82.6%를 차지하고 있다<표 1>.

권역별 기관 분포 현황<표 2>에 의하면, 기관 수가 많은 권역은 동남권(267개소), 서남권(184개소), 동북권(177개소), 서북권(149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기관이 분포된 동남권은 총 267개소 중 정신의료기관이 251개소에 해당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관 수가 많은 권역은 동북권(32개소), 서남권(30개소), 서북권(23개소), 동남권(1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동북권 내 3개 자치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한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1>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2021~2023)

(단위: 개소)

구분		2021	2022	2023
전체기관 합계(A+B+C)		705	765	789
정신건강 증진시설	소계(A)	668	721	752
	정신의료기관	566	621	652
	정신요양시설	3	3	3
	정신재활시설	99	97	97
지역사회 재활기관	소계(B)	30	30	30
	정신건강 복지센터	소계	26	26
		광역	1	1
		기초	25	2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	3	3
	자살예방센터	1	1	1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C)		7	7	7

II.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표 2> 권역 및 자치구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2023) (단위: 개소)

권역	자치구	전체 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역사회재활기관						자립 생활 주택 및 지원 주택
			소계	정신 의료 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소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자살 예방 센터	
								소계	광역	기초			
전체		789	752	652	3	97	30	26	1	25	3	1	7
동북권	소계	177	166	134	-	32	11	8	-	8	3	-	-
	강북구	14	12	10	-	2	2	1	-	1	1	-	-
	광진구	31	30	25	-	5	1	1	-	1	-	-	-
	노원구	27	25	21	-	4	2	1	-	1	1	-	-
	도봉구	18	16	9	-	7	2	1	-	1	1	-	-
	동대문구	25	24	20	-	4	1	1	-	1	-	-	-
	성동구	20	19	17	-	2	1	1	-	1	-	-	-
	성북구	17	16	14	-	2	1	1	-	1	-	-	-
	종랑구	25	24	18	-	6	1	1	-	1	-	-	-
동남권	소계	267	263	251	-	12	4	4	-	4	-	-	-
	강남구	116	115	114	-	1	1	1	-	1	-	-	-
	강동구	34	33	29	-	4	1	1	-	1	-	-	-
	서초구	66	65	62	-	3	1	1	-	1	-	-	-
	송파구	51	50	46	-	4	1	1	-	1	-	-	-
서북권	소계	149	143	120	-	23	6	6	-	6	-	-	-
	마포구	43	42	38	-	4	1	1	-	1	-	-	-
	서대문구	19	18	11	-	7	1	1	-	1	-	-	-
	용산구	11	10	9	-	1	1	1	-	1	-	-	-
	은평구	22	21	14	-	7	1	1	-	1	-	-	-
	종로구	31	30	27	-	3	1	1	-	1	-	-	-
	중구	23	22	21	-	1	1	1	-	1	-	-	-
서남권	소계	184	177	147	-	30	7	7	-	7	-	-	-
	강서구	38	37	30	-	7	1	1	-	1	-	-	-
	관악구	31	30	25	-	5	1	1	-	1	-	-	-
	구로구	20	19	14	-	5	1	1	-	1	-	-	-
	금천구	13	12	10	-	2	1	1	-	1	-	-	-
	동작구	24	23	22	-	1	1	1	-	1	-	-	-
	양천구	24	23	17	-	6	1	1	-	1	-	-	-
	영등포구	34	33	29	-	4	1	1	-	1	-	-	-
기타		12	3	-	3	-	2	1	1	-	-	1	7

1) 기타: 특정 자치구에 속하지 않은 기관(정신요양시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2) 인력 현황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전체인력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439명(8.8%) 증가한 5,427명이며, 증가한 인력 439명의 84.7%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인력에 해당하고 있다<표 3>.

정신건강전문인력의 비율은 2021년 40.5%, 2022년 44.6%, 2023년 45.3%로 3개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4>. 다만 이는 기관 구분별로 증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시설은 2021년 대비 2023년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구성비가 5.9%p 증가한 반면, 지역사회재활기관은 2021년 대비 2023년 10.0%p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지역사회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25개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인력 비율은 2021년 73.2%, 2022년 69.6%, 2023년 68.1%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전체 인력의 68.1%의 인력이 전문인력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전체인력 수(2021~2023)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전체인력 합계(A+B+C)			5,308	4,988	5,427
정신건강 증진시설	소계(A)		4,774	4,397	4,793
	정신의료기관		4,166	3,802	4,174
	정신요양시설		130	136	130
	정신재활시설		478	459	489
지역사회 재활기관	소계(B)		506	561	599
	정신건강 복지센터	소계	450	489	525
		광역	54	65	80
		기초	396	424	44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8	19	19
	자살예방센터		38	53	55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C)			28	30	35

<표 4>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수(2021~2023)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정신건강전문인력 합계(A+B+C)			2,143	2,223	2,457
정신건강 증진시설	소계(A)		1,739	1,824	2,030
	정신의료기관		1,441	1,529	1,736
	정신요양시설		13	12	8
	정신재활시설		285	283	286
지역사회 재활기관	소계(B)		390	386	411
	정신건강 복지센터	소계	337	353	377
		광역	47	58	74
		기초	290	295	30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5	14	14
	자살예방센터		38	19	20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C)			14	13	16

3) 예산 현황

본 자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투입을 통해 운영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재활기관,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에 대한 예산 현황을 직접 조사 및 분석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공공예산의 투입 및 지출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예산 현황은 본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전체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3년 기준 94,725,137천원(약 947억 원)으로, 최근 3개년간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세입예산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10,092원에 해당한다<표 5>.

전체 세입예산은 국비, 시비, 자치구비, 기타(외부프로포절, 이용자 자부담금 등)로 구성되며, 세입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 9.0%, 2022년 13.7%, 2023년 12.6%로 나타났다.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3.0%, 2022년 59.8%, 2023년 60.6%로 나타났다<표 6>.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전체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3년 기준 88,190,507천원(약 882억 원)으로, 최근 3개년간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세출예산도 증가추세로 2023년 9,396원에 해당한다<표 7>.

전체 세출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며,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2021년 71.6%, 2022년 70.3%, 2023년 69.7%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 세출예산 중 사업비의 경우 2021년 16.1%, 2022년 20.1%, 2023년 21.8%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8>.

<표 5>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기관유형별 세입예산(2021~2023) (단위: 천원, 원)

구분			2021	2022	2023
세입예산 합계(A+B+C)			79,213,611	89,826,439	94,725,137
정신건강 증진시설	소계(A)		46,310,654	48,499,564	50,266,034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10,721,621	10,417,643	10,755,539
	정신재활시설		35,589,033	38,081,921	39,510,495
지역사회 재활기관	소계(B)		31,340,364	39,539,473	42,396,121
	정신건강 복지센터	소계	27,345,523	34,555,534	37,164,268
		광역	4,270,834	5,537,312	6,465,843
		기초	23,074,689	29,018,222	30,698,42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03,392	1,001,179	1,080,140
	자살예방센터		3,091,449	3,982,760	4,151,713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C)			1,562,593	1,787,402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세입예산			8,330	9,527	10,092

<표 6>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자원출처별 세입예산(2021~2023) (단위: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세입예산 합계	79,213,611	89,826,439	94,725,137
국비	7,123,794	12,263,052	11,922,721
시비	49,870,641	53,725,114	57,394,296
구비	12,238,491	12,991,917	14,606,546
기타	9,980,685	10,846,356	10,801,574

1) 기타: 외부재원 및 접수입, 등록자 자기부담금 등

<표 7>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기관유형별 세출예산(2021~2023) (단위: 천원, 원)

구분		2021	2022	2023
세출예산 합계(A+B+C)		71,844,338	80,517,439	88,190,507
정신건강 증진시설	소계(A)	42,609,178	45,088,580	49,043,225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10,676,250	10,324,049	10,755,539
	정신재활시설	31,932,928	34,764,531	38,287,686
지역사회 재활기관	소계(B)		27,855,156	33,830,108
	정신건강 복지센터	소계	24,166,824	29,412,049
		광역	3,884,965	4,293,047
		기초	20,281,859	25,119,00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898,255	1,000,282
	자살예방센터		2,790,077	3,417,777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C)		1,380,004	1,598,751	1,986,564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세출예산		7,555	8,540	9,396

<표 8>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성질별 세출예산(2021~2023) (단위: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세출예산 합계	71,844,338	80,517,439	88,190,507
인건비	51,440,252	56,642,178	61,468,428
사업비	11,593,564	16,149,977	19,240,428
관리비	8,810,522	7,725,284	7,481,651

2.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제19조 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포함하며, 정신요양시설은 서울시에 설치된 3개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거주·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종합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급성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관리, 기록의 보존, 환자 권익 보호, 작업치료 실시, 시설 안전관리 및 중사자 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1-1)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은 총 652개소로, 2014년 이래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9>. 다만 <표 10>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 정신의료기관 수 증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중 공공 정신의료기관 비율이 3개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의 증가에 따라 2023년 기준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90.8%가 의원급에 해당한다<표 11>.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이용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수는 2023년 6.9개소로 인구 수 감소 및 정신의료기관 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 수는 최대 자치구가 강남구로 20.9개소, 최소 자치구가 도봉구로 2.9개소에 해당하여 자치구별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2>.

<표 9>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2011~2023) (단위: 개소, %)

구분	정신의료기관 수	전년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증감률
2011	323		
2012	335	12	3.7
2013	335	-	-
2014	349	14	4.2
2015	364	15	4.3
2016	380	16	4.4
2017	383	3	0.7
2018	452	69	18.0
2019	487	35	7.7
2020	540	53	10.9
2021	566	26	4.8
2022	621	55	9.7
2023	652	31	5.0

<표 10> 설립 구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2021~2023)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공공				민간			
		소계	국립	공립	군병원	소계	법인	개인	기타
2021	566	15	4	11	-	551	36	515	-
	100.0	2.7	0.7	1.9	-	97.3	6.4	91.0	-
2022	621	15	4	11	-	606	36	570	-
	100.0	2.4	0.6	1.8	-	97.6	5.8	91.8	-
2023	652	15	4	11	-	637	38	599	-
	100.0	2.3	0.6	1.7	-	97.7	5.8	91.9	-

<표 11> 기관 구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2021~2023)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계	정신병원	병원	
2021	566	16	25	22	12	10	503
	100.0	2.8	4.4	3.9	2.1	1.8	88.9
2022	621	14	28	17	12	5	562
	100.0	2.3	4.5	2.7	1.9	0.8	90.5
2023	652	14	27	19	12	7	592
	100.0	2.1	4.1	2.9	1.8	1.1	90.8

<표 12> 자치구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현황(2021~2023) 및 인구 10만 명당 현황(2023) (단위: 개소, %)

구분	2021		2022		2023		2023년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 수
합계	566	100.0	621	100.0	652	100.0	6.9
강남구	105	18.6	101	16.3	114	17.5	20.9
강동구	30	5.3	30	4.8	29	4.4	6.3
강북구	11	1.9	11	1.8	10	1.5	3.5
강서구	26	4.6	30	4.8	30	4.6	5.3
관악구	22	3.9	25	4.0	25	3.8	5.2
광진구	23	4.1	23	3.7	25	3.8	7.5
구로구	14	2.5	14	2.3	14	2.1	3.6
금천구	9	1.6	8	1.3	10	1.5	4.4
노원구	20	3.5	21	3.4	21	3.2	4.2
도봉구	9	1.6	9	1.4	9	1.4	2.9
동대문구	21	3.7	20	3.2	20	3.1	5.9
동작구	17	3.0	19	3.1	22	3.4	5.8
마포구	32	5.7	37	6.0	38	5.8	10.4
서대문구	12	2.1	11	1.8	11	1.7	3.6
서초구	53	9.4	59	9.5	62	9.5	15.2
성동구	14	2.5	16	2.6	17	2.6	6.1
성북구	12	2.1	13	2.1	14	2.1	3.3
송파구	42	7.4	48	7.7	46	7.1	7.0
양천구	16	2.8	18	2.9	17	2.6	3.9
영등포구	25	4.4	28	4.5	29	4.4	7.7
용산구	7	1.2	8	1.3	9	1.4	4.2
은평구	14	2.5	14	2.3	14	2.1	3.0
종로구	2	0.4	23	3.7	27	4.1	19.4
중구	16	2.8	18	2.9	21	3.2	17.3
중랑구	14	2.5	17	2.7	18	2.8	4.7

1) 종로구의 경우 2021년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 시 상급종합병원 외 무응답하여 자료 활용에 유의를 요함.

2)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 수(개소): 정신의료기관 수 ÷ 주민등록인구 x 100,000

1-2) 정신의료기관 병상 현황

2023년 정신의료기관이 보유한 총 입원병상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보유율은 10.7%로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3>. 앞서 기관 현황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정신의료기관 수는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입원병상을 운용하지 않는 의원급 기관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종합병원급의 기관이 감소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은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되며, 입원병상 중 폐쇄병상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체 입원병상 중 79.2%의 병상이 폐쇄병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염병 격리병상의 경우, COVID-19 이후 2021년 354개 신규 설치되었으며 2022년에 570개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361개로 감소하였다. 낮병동 병상의 경우 최근 6년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는데, COVID-19의 본격적 확산 국면이었던 2022년 급감하였다가 2023년 455개로 증가하였다<표 14>.

2023년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입원병상 수는 39.1개이며, 인구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인구 10만 명당 입원병상 수가 226.9개로 조사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을 보유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으며, 이는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에 해당한다<표 15>.

<표 13> 총 입원병상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수 및 보유율 현황(2018~2023) (단위: 개소, 개, %)

구분	기관수	총 입원병상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병상수	총 입원병상 대비 보유율
2018	452	33,367	4,469	13.4
2019	487	31,712	4,441	14.0
2020	540	32,774	4,836	14.8
2021	566	34,941	4,571	13.1
2022	621	32,255	3,854	11.9
2023	652	34,331	3,673	10.7

1) 총 입원병상 대비 보유율(%):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 총 입원병상 x 100

<표 14>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유형별 현황(2018~2023) (단위: 개소, 개, %)

구분	기관 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수						낮병동 병상	감염병 격리병상
		합계		개방병상		폐쇄병상			
2018	452	4,469	100.0	1,093	24.5	3,376	75.5	526	
2019	487	4,441	100.0	1,087	24.5	3,354	75.5	427	
2020	540	4,836	100.0	1,411	29.2	3,425	70.8	539	
2021	566	4,571	100.0	1,243	27.2	3,328	72.8	461	354
2022	621	3,854	100.0	819	21.3	3,035	78.2	373	570
2023	652	3,673	100.0	763	20.8	2,910	79.2	455	361

1) 감염병 격리병상이란 2021년 3월 5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의 병상을 의미함.

<표 15> 자치구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현황(2021~2023) 및 인구 10만 명당 현황(2023) (단위: 개, %)

구분	2021		2022		2023		2023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수
합계	4,571	100.0	3,854	100.0	3,673	100.0	39.1
강남구	72	1.6	72	1.9	57	1.6	10.5
강동구	208	4.6	86	2.2	86	2.3	18.7
강북구	-	-	-	-	-	-	-
강서구	177	3.9	177	4.6	163	4.4	28.9
관악구	336	7.4	-	-	-	-	-
광진구	381	8.3	335	8.7	342	9.3	101.9
구로구	218	4.8	243	6.3	197	5.4	50.2
금천구	212	4.6	219	5.7	216	5.9	95.0
노원구	47	1.0	50	1.3	51	1.4	10.2
도봉구	601	13.1	389	10.1	375	10.2	122.2
동대문구	809	17.7	774	20.1	774	21.1	226.9
동작구	60	1.3	60	1.6	60	1.6	15.8
마포구	-	-	-	-	-	-	-
서대문구	71	1.6	97	2.5	98	2.7	32.0
서초구	35	0.8	35	0.9	35	1.0	8.6
성동구	28	0.6	28	0.7	33	0.9	11.9
성북구	34	0.7	34	0.9	34	0.9	8.0
송파구	306	6.7	279	7.2	245	6.7	37.5
양천구	20	0.4	20	0.5	20	0.5	4.6
영등포구	288	6.3	288	7.5	229	6.2	61.1
용산구	21	0.5	21	0.5	21	0.6	9.9
은평구	195	4.3	195	5.1	193	5.3	41.3
종로구	84	1.8	83	2.2	83	2.3	59.5
중구	20	0.4	20	0.5	20	0.5	16.5
종랑구	348	7.6	349	9.1	341	9.3	89.2

1)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수(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 수 ÷ 주민등록인구 x 100,000

1-3) 정신의료기관 환자 현황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의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는 3개년간 증가 추세이며,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4,460명(25.8%) 이 증가하여 일 평균 21,863명의 환자가 외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또한 전체 외래환자의 79.0%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표 17>,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수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이 외래환자 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2023년 3,267명으로, 전년대비 596명(2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8>. 입원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50대에 해당되지만, 2021년 이후 50대 입원 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20대로 2019년 7.2%에서 2023년 11.2%로 증가하였다.

또한 입원환자 중 중증정신질환 환자 비율이 2019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입원환자 중 조현병 환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증우울삽화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원환자 중 자의적 입원환자의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자의적 입원환자가 64.0%로 2019년 대비 12.9%p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응급입원 환자 수는 2022년 9명에서 2023년 125명으로,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적시 치료 기회를 제공받는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정신의료기관 일 평균 외래 및 낮병동 환자 현황(2021~2023) (단위: 개소, 명)

구분		2021	2022	2023
기관현황 (12.31기준)	정신의료기관 수	566	621	652
	낮병동	운영	19	14
		정신의료기관 수	461	373
환자현황 (일평균)	외래 환자	17,373	18,722	21,863
	낮병동 환자	215	270	279

1)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및 일 평균 낮병동 환자 수는 연간 일평균 외래환자 수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및 일 평균 낮병동 환자 수는 평균값의 합으로 단순 합계와 상이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 요함

<표 17> 기관 구분별 정신의료기관 일 평균 외래환자 현황(2023)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계	정신병원	병원	
정신의료기관 수		652	14	27	19	12	7	592
일 평균 외래환자 수	전체	21,863	2,328	1,455	800	617	183	17,280
	정신의료기관 1개소 당	33.5	166.3	53.9	77.5	51.4	26.1	29.0

1) 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연간 일평균 외래환자 수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평균값의 합으로 단순 합계와 상이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 요함.
3) 정신의료기관 1개소 당 일평균 외래환자 수(명): 일 평균 외래환자 수 전체 ÷ 정신의료기관 수

<표 18> 질환별 및 입원유형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현황(2019~2023)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입원 환자 수			3,682	100.0	3,410	100.0	2,961	100.0	2,671	100.0	3,267	100.0
전년 대비 증감					-272	-7.4	-449	-13.2	-290	-9.8	596	22.3
질환별 구분	합계		3,682	100.0	3,410	100.0	2,961	100.0	2,671	100.0	3,267	100.0
	중증 정신 질환	소계	2,287	62.1	2,146	62.9	1,993	67.3	1,887	70.6	2,401	73.5
		조현병	1,582	43.0	1,621	47.5	1,483	50.1	1,361	51.0	1,624	49.7
		기타 정신증 (정신병적 장애)	197	5.4	165	4.8	152	5.1	163	6.1	198	6.1
		조증 삽화	47	1.3	20	0.6	41	1.4	34	1.3	35	1.1
		양극성	310	8.4	234	6.9	208	7.0	230	8.6	322	9.9
		중증우울 삽화, 반복성	151	4.1	106	3.1	109	3.7	99	3.7	222	6.8
	중독질환		758	20.6	611	17.9	480	16.2	437	16.4	476	14.6
	기타 우울증		201	5.5	162	4.8	109	3.7	120	4.5	141	4.3
	치매		148	4.0	166	4.9	131	4.4	68	2.5	54	1.7
	정신지체		53	1.4	71	2.1	56	1.9	45	1.7	48	1.5
	신경증		27	0.7	17	0.5	20	0.7	23	0.9	22	0.7
	뇌전증		9	0.2	9	0.3	7	0.2	4	0.1	5	0.2
	기타		199	5.4	228	6.7	165	5.6	87	3.3	120	3.7
	입원 유형별 구분	합계		3,682	100.0	3,410	100.0	2,961	100.0	2,671	100.0	3,267
자의적 입원		소계	2,831	76.9	2,616	76.7	2,210	74.6	1,922	72.0	2,090	64.0
		자의입원 (제41조)	1,610	43.7	1,447	42.4	1,225	41.4	1,102	41.3	1,156	35.4
		동의입원 (제42조)	1,221	33.2	1,169	34.3	985	33.3	820	30.7	934	28.6
비자의적 입원		소계	828	22.5	725	21.3	709	23.9	740	27.7	1,050	32.1
		보호의무자에 의한입원 (제43조)	692	18.8	604	17.7	578	19.5	598	22.4	787	24.1
		행정입원 (제44조)	136	3.7	121	3.5	131	4.4	142	5.3	263	8.1
응급입원 (제50조)		10	0.3	5	0.1	16	0.5	9	0.3	125	3.8	
기타		13	0.4	64	1.9	26	0.9	-	-	2	0.1	

1-4) 정신의료기관 인력 현황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크게 정신건강전문인력과 일반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을 의미하며, 일반인력은 정신건강전문인력을 제외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기타인력)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중 정신건강전문인력은 41.6%, 일반인력은 58.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인력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2023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중 54.3%가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원급 기관 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인력 비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0>.

<표 19>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인력 현황(2019~2023) (단위: 명, %)

구분	합계	정신건강전문인력			일반인력
		소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2020	3,434	1,349	863	486	2,085
	100.0	39.3	25.1	14.2	60.7
2022	3,741	1,466	909	557	2,275
	100.0	39.2	24.3	14.9	60.8
2021	4,166	1,441	954	487	2,725
	100.0	34.6	22.9	11.7	65.4
2022	3,802	1,529	1,015	514	2,273
	100.0	40.2	26.7	13.5	59.8
2023	4,174	1,736	1,139	597	2,438
	100.0	41.6	27.3	14.3	58.4

<표 20> 기관 구분별 정신의료기관 인력 현황(2023)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 수	합계	정신건강전문인력			일반인력
				소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합계		652	4,174	1,736	1,139	597	2,438
상급종합병원		14	705	281	152	129	424
종합병원		27	364	137	77	60	227
병원	소계	19	999	375	76	299	624
	정신병원	12	887	340	63	277	547
	병원	7	112	35	13	22	77
의원		592	2,106	943	834	109	1,163

2)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입·퇴소 관리, 입소자 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입소자 건강관리, 입소자 요양보호,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2-1) 정신요양시설 기관 현황

2023년 기준 서울시 정신요양시설은 3개소이며,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양주시에 각각 1개소씩 위치하고 있다. 3개 정신요양시설 전체 정원은 7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원충족률(정원 대비 12월 31일 기준 현원 비율)은 최근 3개년 평균 67.4%를 보이고 있다<표 21>.

<표 21> 정신요양시설 기관 및 정원 현황(2021~2023) (단위: 명, 개소, %)

구분	2021	2022	2023
주민등록인구	9,509,458	9,428,372	9,386,034
추계중증정신질환자	85,585	84,855	84,474
정신요양시설 수	3	3	3
정신요양시설 정원	730	730	700
정신요양시설 정원충족률	68.1	65.1	69.1

1) 추계중증정신질환자(명):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0.9% 적용 (출처: 2014-2019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 정원충족률(%): 현원 ÷ 정원 × 100

2-2) 정신요양시설 예산 현황

2023년 기준 정신요양시설의 세입예산은 10,755,539천원, 세출예산은 10,755,53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비 44.4%, 시비 46.7%, 이외 기타 예산(외부재원 및 잡수입 등) 8.9%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69.9%, 사업비 21.9%, 관리운영비 8.3%의 비율로 구성되어있다<표 22>.

2023년 정신요양시설 세출예산 중 관리운영비의 구성비가 전년 대비 8.4%p 감소하였으며, 실제 예산액은 48.3%(832,789천원) 감소하였다. 사업비는 2021년 대비 2022년 감소하였다가 2023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인건비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정신요양시설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세입예산	합계	10,721,621	100.0	10,417,643	100.0	10,755,539	100.0
	국비	4,723,133	44.1	4,579,283	44.0	4,779,625	44.4
	시비	5,167,315	48.2	4,844,609	46.5	5,019,240	46.7
	구비	-	-	-	-	-	-
	기타	831,173	7.8	993,751	9.5	956,674	8.9
세출예산	합계	10,676,250	100.0	10,324,049	100.0	10,755,539	100.0
	인건비	6,702,361	62.8	7,282,190	70.5	7,514,743	69.9
	관리운영비	1,980,285	18.5	1,722,695	16.7	889,906	8.3
	사업비	1,993,604	18.7	1,319,164	12.8	2,350,890	21.9

1) 기타: 외부재원 및 잡수입

2-3) 정신요양시설 인력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신요양시설 3개소의 전체인력은 130명으로 상근인력 128명, 비상근인력 2명에 해당하며, 정신요양시설 1개소 당 평균 4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인력 130명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제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5명으로 전체의 3.8%에 해당하며,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는 최근 3개년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정신건강전문요원 5명 중 정신건강간호사 4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력은 전체인력의 93.8%에 해당하며, 간호사 12.3%(16명), 사회복지사 43.1%(56명), 작업치료사 3.1%(4명), 기타(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원 등) 35.4%(46명)로 조사되었다<표 23>.

<표 23>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현황(2021~2023)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인력	합계		130	100.0	136	100.0	130	100.0		
	상근		128	98.5	135	99.3	128	98.5		
	비상근		2	1.5	1	0.7	2	1.5		
직종 현황	합계		130	100.0	136	95.6	130	100.0		
	정신건강 전문인력	소계		13	10.0	12	8.8	8	6.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2.3	3	2.2	3	2.3	
		정신건강 전문요원	소계		10	7.7	9	6.6	5	3.8
			간호사		7	5.4	6	4.4	4	3.1
			사회복지사		3	2.3	3	2.2	1	0.8
			임상심리사		-	-	-	-	-	-
			작업치료사		-	-	-	-	-	-
		일반인력	소계		117	90.0	124	91.2	122	93.8
	간호사		10	7.7	11	8.1	16	12.3		
	사회복지사		65	50.0	66	48.5	56	43.1		
	임상심리사		-	-	-	-	-	-		
	작업치료사		-	-	1	0.7	4	3.1		
	동료지원가		-	-	-	-	-	-		
	기타		42	32.3	30	22.1	46	35.4		

1) 기타: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원 등

2-4) 정신요양시설 등록자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신요양시설 등록자 수는 484명으로, 1개 기관 당 평균 161명의 등록자 현황을 보이고 있다. 전체 등록자 484명 중 10년 이상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등록자가 7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등록자 중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가진 등록자는 0명, 사례관리자 평가 결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등록자는 전체 등록자의 98.3%(476명)로 조사되었다<표 24>.

<표 24> 이용기간별 정신요양시설 등록자 수 및 독립생활 가능 여부 현황(2021~2023) (단위: 개소, 명, %)

구분			2021		2022		2023	
기관 수			3		3		3	
등록자 수			497		475		484	
이용기간	합계		497	100.0	475	100.0	484	100.0
	1개월 미만		-	-	-	-	3	0.6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3	0.6	9	1.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2	0.4	9	1.9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0.8	2	0.4	3	0.6
	1년 이상 3년 미만		44	8.9	9	1.9	9	1.9
	3년 이상 5년 미만		28	5.6	55	11.6	43	8.9
	5년 이상 10년 미만		57	11.5	41	8.6	51	10.5
	10년 이상		364	73.2	363	76.4	357	73.8
독립생활 가능여부	사례 관리자 평가	합계	497	100.0	475	100.0	484	100.0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함	42	8.5	32	6.7	3	0.6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시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함	28	5.6	10	2.1	5	1.0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	427	85.9	433	91.2	476	98.3
	독립욕구가 있는 등록자		5	1.0	5	1.1	-	-

3) 정신재활시설

3-1) 정신재활시설 기관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신재활시설은 서울시 보조금 미수령기관을 제외하고 총 97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기관 수는 동일하나, 정원은 51명 증원하였다. 이는 주간재활시설의 정원 변경에 의한 증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계중증정신질환자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최근 3개년간 동일하게 25명으로 나타났다<표 25>.

권역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분포는 동북권(32개소), 서남권(30개소), 서북권(23개소), 동남권(12개소)순이며<표 26>, 동남권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위치한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기관 유형별 정신재활시설 기관 현황(2021~2023) (단위: 개소, 명)

구분	2021		2022		2023	
	기관 수	정원	기관 수	정원	기관 수	정원
합계	99	2,112	97	2,099	97	2,150
주간재활시설	25	1,036	25	1,036	25	1,091
공동생활가정	50	346	48	333	48	329
지역사회전환시설	4	100	4	100	4	100
직업재활시설	7	198	7	198	7	198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8	279	8	279	8	279
중독자재활시설	3	53	3	53	3	53
종합시설	2	100	2	100	2	100
추계중증정신질환자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원 수		25		25		25

1) 중증정신질환자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원 수(명): 추계중증정신질환자 ÷ 주민등록인구 × 1,000
2) 추계중증정신질환자(명)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0.9% 적용 (출처: 2014-2019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표 26> 권역 및 자치구별 정신재활시설 기관 현황(2023)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주간재활 시설	공동생활 가정	지역사회 전환시설	직업재활 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 시설
합계		97	25	48	4	7	8	3	2
동북권	소계	32	9	17	2	2	1	1	-
	강북구	2	1	1	-	-	-	-	-
	광진구	5	1	3	1	-	-	-	-
	노원구	4	2	2	-	-	-	-	-
	도봉구	7	1	4	1	-	-	1	-
	동대문구	4	1	2	-	1	-	-	-
	성동구	2	1	-	-	1	-	-	-
	성북구	2	1	1	-	-	-	-	-
	종랑구	6	1	4	-	-	1	-	-
동남권	소계	12	5	3	1	-	2	-	1
	강남구	1	1	-	-	-	-	-	-
	강동구	4	1	2	1	-	-	-	-
	서초구	3	2	-	-	-	1	-	-
	송파구	4	1	1	-	-	1	-	1
서북권	소계	23	4	11	1	2	3	2	-
	마포구	4	2	-	-	-	-	2	-
	서대문구	7	1	5	-	-	1	-	-
	용산구	1	-	-	-	1	-	-	-
	은평구	7	1	5	1	-	-	-	-
	종로구	3	-	1	-	1	1	-	-
	중구	1	-	-	-	-	1	-	-
서남권	소계	30	7	17	-	3	2	-	1
	강서구	7	1	4	-	1	-	-	1
	관악구	5	2	3	-	-	-	-	-
	구로구	5	1	3	-	1	-	-	-
	금천구	2	-	2	-	-	-	-	-
	동작구	1	-	-	-	-	1	-	-
	양천구	6	1	5	-	-	-	-	-
	영등포구	4	2	-	-	1	1	-	-

3-2) 정신재활시설 예산 현황

정신재활시설의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2022년 7.0%, 2022년 대비 2023년 3.8% 증가하여 최근 3개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간재활시설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27>. 정신재활시설 세입예산의 재원 출처는 서울시비가 가장 많은 비율(72.1%)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기타(이용자 부담금, 생산품 판매금, 법인지원금 등) 항목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24.7%)을 차지했다. 직업재활시설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종합시설은 국비의 투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8>.

정신재활시설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2022년 8.9%, 2022년 대비 2023년 10.1% 증가하여 3개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29>. 성질별 집행액은 인건비가 6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업비가 24.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투입이 가장 높은 기관은 지역사회전환시설(82.9%)이며, 사업비 투입이 가장 높은 기관은 직업재활시설(4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0>.

<표 27>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세입예산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35,589,033	100.0	38,081,921	100.0	39,510,495	100.0
주간재활시설	13,085,171	36.8	13,415,665	35.2	14,696,212	37.2
공동생활가정	7,344,024	20.6	7,363,474	19.3	7,488,643	19.0
지역사회전환시설	2,722,259	7.6	3,382,648	8.9	3,457,989	8.8
직업재활시설	5,180,849	14.6	5,591,626	14.7	5,264,512	13.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3,706,625	10.4	4,005,160	10.5	4,150,325	10.5
중독자재활시설	1,642,273	4.6	2,057,223	5.4	1,796,576	4.5
종합시설	1,907,832	5.4	2,266,125	6.0	2,656,238	6.7

<표 28>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세입예산의 재원출처 현황(2023)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소계	후원금	법인 지원금	프로포절 등 외부재원	자부담 및 기타소득
합계	39,510,495	237,160	28,494,784	1,005,781	9,772,770	1,157,618	550,960	992,125	7,072,067
주간 재활시설	14,696,212	46,395	11,045,242	446,676	3,157,899	640,212	228,323	581,645	1,707,719
공동생활 가정	7,488,643	166,521	5,357,417	274,780	1,689,925	256,625	86,355	73,259	1,273,686
지역사회 전환시설	3,457,989	1,454	3,109,014	3,120	344,401	32,195	12,655	3,450	296,101
직업재활 시설	5,264,512	-	1,812,182	275,655	3,176,675	106,021	111,727	152,744	2,806,18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4,150,325	-	3,392,151	5,550	752,624	80,662	56,700	167,600	447,662
중독자 재활시설	1,796,576	22,790	1,539,231	-	234,555	39,733	43,000	9,727	142,095
종합시설	2,656,238	-	2,239,547	-	416,691	2,170	12,200	3,700	398,621

<표 29>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세출예산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31,932,928	100.0	34,764,531	100.0	38,287,686	100.0
주간재활시설	11,771,059	36.9	12,443,424	35.8	14,157,726	37.0
공동생활가정	6,839,621	21.4	6,661,454	19.2	7,339,975	19.2
지역사회전환시설	2,058,022	6.4	3,218,134	9.3	3,367,668	8.8
직업재활시설	4,753,837	14.9	5,287,969	15.2	5,131,556	13.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3,229,514	10.1	3,695,681	10.6	3,987,451	10.4
중독자재활시설	1,535,861	4.8	1,498,249	4.3	1,683,004	4.4
종합시설	1,745,014	5.5	1,959,620	5.6	2,620,306	6.8

<표 30>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2023)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합계	38,287,686	25,794,350	3,266,197	9,227,139
주간재활시설	14,157,726	9,924,095	1,204,978	3,028,653
공동생활가정	7,339,975	5,334,852	829,559	1,175,564
지역사회전환시설	3,367,668	2,791,559	188,923	387,186
직업재활시설	5,131,556	2,316,685	412,817	2,402,05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3,987,451	2,665,196	320,606	1,001,649
중독자재활시설	1,683,004	1,387,218	103,968	191,818
종합시설	2,620,306	1,374,745	205,346	1,040,215

1) 정신재활시설 사업비는 시설비, 장비구입비, 생계비, 프로그램비, 기타를 포함함.

3-3) 정신재활시설 인력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신재활시설 전체인력은 489명으로 상근인력 473명, 비상근인력 16명으로 조사되었다<표 31>. 전체인력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86명으로 58.5%에 해당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비율은 전년 대비 2.6%p 감소하였다. 정신재활시설 중 가장 많은 비율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유형은 주간재활시설로 69.2%에 해당하며, 가장 낮은 비율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유형은 지역사회전환시설로 42.3%에 해당하였다<표 32>.

정신재활시설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44.8%(219명)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인력(비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은 사회복지사로 30.3%(148명)로 조사되었다<표 33>.

<표 31>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인력 현황(2021~2023)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상근	비상근	합계	상근	비상근	합계	상근	비상근
합계	478	458	20	459	447	12	489	473	16
주간재활시설	188	185	3	176	174	2	214	211	3
공동생활가정	95	80	15	88	78	10	87	75	12
지역사회전환시설	50	50	-	51	51	-	52	52	-
직업재활시설	34	34	-	33	33	-	34	34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56	55	1	57	57	-	52	52	-
중독자재활시설	27	26	1	27	27	-	25	24	1
종합시설	28	28	-	27	27	-	25	25	-

<표 32>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및 비율 현황(2021~2023)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인력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문요원 비율	전체 인력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문요원 비율	전체 인력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문요원 비율
합계	478	285	59.6	463	283	61.1	489	286	58.5
주간재활시설	188	135	71.8	176	134	76.1	214	148	69.2
공동생활가정	95	54	56.8	88	52	59.1	87	48	55.2
지역사회전환시설	50	24	48.0	51	21	41.2	52	22	42.3
직업재활시설	34	17	50.0	33	16	48.5	34	16	47.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56	28	50.0	57	28	49.1	52	26	50.0
중독자재활시설	27	12	44.4	27	11	40.7	25	11	44.0
종합시설	28	15	53.6	27	17	63.0	25	15	60.0

<표 33>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인력의 직종 현황(2023) (단위: 명)

구분		합계	주간재활 시설	공동생활 가정	지역사회 전환시설	직업재활 시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 시설
합계		489	214	87	52	34	52	25	25
정신건강 전문인력	소계	286	148	48	22	16	26	11	15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	-	-	-	-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소계	286	148	48	22	16	26	11
		간호사	44	13	23	2	2	1	-
		사회복지사	219	126	25	19	14	11	12
		임상심리사	22	9	-	-	13	-	-
		작업치료사	1	-	-	1	-	-	-
일반인력	소계	203	66	39	30	18	26	14	10
	간호사	6	1	4	-	-	-	-	1
	사회복지사	148	58	34	17	16	7	9	7
	임상심리사	10	2	-	-	-	6	2	-
	작업치료사	12	2	-	9	-	1	-	-
	동료지원가	1	-	1	-	-	-	-	-
	기타	26	3	-	4	2	12	3	2

1)기타: 상담심리사, 생활지도원 등

3-4)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수는 2,009명으로, 최근 3개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등록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유형은 종합시설로 30.3%(23명) 증가하였으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관유형은 지역사회전환시설로 18.2%(16명) 감소하였다<표 34>.

정신재활시설 전체 정원충족률은 93.4%로,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은 기관유형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로 100.7%에 해당하며, 정원충족률이 가장 낮은 기관유형은 중독자재활시설로 64.2%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의 현원은 정원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신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의 경우 5년 이상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43.3%에 해당하여 정신재활시설 중 장기이용자가 가장 많은 기관유형으로 조사되었고, 지역사회전환시설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일시 주거 제공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초과하는 이용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5>.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중 독립욕구를 나타내는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유형은 지역사회전환시설로 전체 이용자의 68.1%에 해당하며,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용자의 독립생활 가능 여부와 관련한 사례관리자 평가의 경우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이용자가 16.7%,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이용자가 63.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표 34>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및 정원충족률 현황(2021~2023) (단위: 개소, 명, %)

구분	2021				2022				2023			
	기관수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기관수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기관수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합계	99	2,112	1,925	91.1	97	2,099	1,979	94.3	97	2,150	2,009	93.4
주간재활시설	25	1,036	1,035	99.9	25	1,036	1,053	101.6	25	1,091	1,092	100.1
공동생활가정	50	346	275	79.5	48	333	268	80.5	48	329	257	78.1
지역사회전환시설	4	100	71	71.0	4	100	88	88.0	4	100	72	72.0
직업재활시설	7	198	180	90.9	7	198	180	90.9	7	198	174	87.9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8	279	268	96.1	8	279	277	99.3	8	279	281	100.7
중독자재활시설	3	53	41	77.4	3	53	37	69.8	3	53	34	64.2
종합시설	2	100	55	55.0	2	100	76	76.0	2	100	99	99.0

1) 정신재활시설 입소(이용) 현원은 입소(이용) 정원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서 기준).

2) 정원충족률(%): 현원 ÷ 정원 × 100

<표 35>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이용기간 현황(2023) (단위: 명, %)

구분	합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09	100.0	212	10.6	158	7.9	306	15.2	480	23.9	294	14.6	559	27.8
주간재활시설	1,092	100.0	69	6.3	37	3.4	125	11.4	215	19.7	173	15.8	473	43.3
공동생활가정	257	100.0	22	8.6	16	6.2	40	15.6	96	37.4	73	28.4	10	3.9
지역사회전환시설	72	100.0	42	58.3	30	41.7	-	-	-	-	-	-	-	-
직업재활시설	174	100.0	5	2.9	8	4.6	15	8.6	46	26.4	41	23.6	59	33.9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281	100.0	56	19.9	50	17.8	98	34.9	77	27.4	-	-	-	-
중독자재활시설	34	100.0	7	20.6	6	17.6	5	14.7	15	44.1	1	2.9	-	-
종합시설	99	100.0	11	11.1	11	11.1	23	23.2	31	31.3	6	6.1	17	17.2

<표 36> 기관유형별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독립생활 가능 여부 현황(2023) (단위: 명, %)

구분	등록자 (현원)	독립생활 욕구		독립생활 가능여부(사례관리자 평가)							
		욕구 있음	등록자 대비 비율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함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합계	
합계	1,728	771	44.6	627	36.3	743	43.0	358	20.7	1,728	100.0
주간재활시설	1,092	418	38.3	446	40.8	445	40.8	201	18.4	1,092	100.0
공동생활가정	257	154	59.9	68	26.5	117	45.5	72	28.0	257	100.0
지역사회전환시설	72	49	68.1	12	16.7	46	63.9	14	19.4	72	100.0
직업재활시설	174	83	47.7	35	20.1	91	52.3	48	27.6	174	100.0
중독자 재활시설	34	16	47.1	17	50.0	13	38.2	4	11.8	34	100.0
종합시설	99	51	51.5	49	49.5	31	31.3	19	19.2	99	100.0

1)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등록자(281명)는 독립생활욕구 조사항목에서 제외함.

3. 지역사회재활기관 현황

본 보고서의 지역사회재활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를 포함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서울시에는 1개소의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총 25개소의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동법 제15조의 3에 의거,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서울시에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 자살자의 유족지원 및 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광역형 자살예방센터 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내에는 성북구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 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현황을 다루는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운영형태 측면에서 직영형과 위탁형으로 분류된다. 직영형의 경우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이고, 위탁형의 경우 각 지역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기관 유형별 운영 형태는 <표 37>과 같다.

<표 37> 지역사회재활기관 기관유형별 운영형태(2023)

구분		직영형	위탁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광역형	-	서울시 (1개소)
	기초형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14개소)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11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3개소)
자살예방센터(광역형)		-	서울시 (1개소)

1)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기획, 수립, 조정 및 수행 기관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예방과 치료,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기관이다. 광역 단위 정신건강사업 기획 및 운영을 포함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재난 정신건강서비스지원 외에도 지역 특성에 따른 찾아가는 심리지원, 청년정신건강사업, 중독관리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1-1)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세입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에 따라 전체 예산액 및 세입예산 재원출처 구성비에 변화를 보였다<표 38>.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2021년 58.0%, 2022년 61.0%, 2023년 65.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그 구성비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리운영비의 경우 2023년 전체 세출 예산액의 7.4%에 해당하여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

<표 38>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세입예산	합계	4,270,834	100.0	5,537,312	100.0	6,465,843	100.0
	국비	522,584	12.2	1,800,765	32.5	1,224,001	18.9
	시비	3,748,250	87.8	3,736,547	67.5	5,241,842	81.1
	구비	-	-	-	-	-	-
세출예산	합계	3,884,965	100.0	4,293,047	100.0	5,441,038	100.0
	인건비	2,251,367	58.0	2,618,971	61.0	3,581,787	65.8
	관리운영비	502,068	12.9	494,852	11.5	400,921	7.4
	사업비	1,131,530	29.1	1,179,224	27.5	1,458,330	26.8

1-2)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전체인력은 80명으로 2021년 대비 48.1%(26명) 증가하였다. 증가된 인력은 모두 상근인력에 해당하며, 비상근인력은 센터장과 임상자문의를 포함한다<표 39>.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체인력 80명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72명으로, 전문요원 보유율은 90.0%에 해당한다. 전체인력 대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비율은 2021년 83.3%, 2022년 86.2%, 2023년 90.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전문인력의 경우 동료지원가와 행정인력(기타)에 해당한다.

종사자의 근속기간 평균은 2021년 42.3개월, 2022년 40.3개월, 2023년 41.3개월로 나타났으며, 근속기간 중앙값은 2021년 30.0개월, 2022년 22.0개월, 2023년 19.0개월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최근 3개년간 종사자 근속기간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종사자의 근속기간 분포가 편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9>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단위: 명, 개월,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인력(12.31.기준)			54	65	80	
근무 형태	합계		54	65	80	
	비상근		2	2	2	
	상근		52	63	78	
직종 현황	합계		54	65	80	
	정신건강 전문인력	소계	47	58	74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2	2
		정신건강 전문요원	소계	45	56	72
			간호사	6	11	16
			사회복지사	37	44	55
			임상심리사	2	1	1
			작업치료사	-	-	-
	일반인력	소계	7	7	6	
		간호사	-	-	-	
		사회복지사	-	-	-	
		임상심리사	-	-	-	
		작업치료사	-	-	-	
		동료지원가	1	1	1	
	기타	6	6	5		
근속 현황	근속기간 평균		42.3	40.3	41.3	
	근속기간 중앙값		30.0	22.0	19.0	
퇴사인력(1.1~12.31)			6	17	9	
이직 현황	전기말근로자		47	54	65	
	연간퇴사자		6	17	9	
	이직률		12.8	31.5	13.8	
퇴사자 근속 기간	합계		6	17	9	
	1년 미만		2	5	2	
	1년 이상 3년 미만		3	8	4	
	3년 이상 5년 미만		1	3	3	
	5년 이상		-	1	-	

1) 기타: 행정요원, 통계전문가 등

2)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을 예방을 위한 사업과 정신질환자 발견·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구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정신건강환경 조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2-1)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

2023년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세입예산은 30,698,425천원으로 2021년 대비 33.0% 증가하였다<표 40>. 특히 세입예산 재원 출처 중 국비 예산액이 287.0%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합정신건강사업 확대와 국비 보조 인력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2023년 세출예산은 27,026,416천원으로 2021년 대비 33.3% 증가하였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 중 인건비가 2023년 74.0%로 2021년 대비 7.7%p 감소하였으며, 사업비 비율은 5.4%p 감소하였다.

전체 세출예산 증액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 모두 2021년 대비 2023년 예산액은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의 88.0% 수준에 해당하며, 세출예산 항목에서 인건비는 감소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련 인력 부족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40>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세입예산	합계	23,074,689	100.0	29,018,222	100.0	30,698,425	100.0
	국비	1,198,391	5.2	4,574,405	15.8	4,637,816	15.1
	시비	10,589,398	45.9	12,038,012	41.5	12,966,379	42.2
	구비	11,281,950	48.9	12,405,805	42.8	13,089,230	42.6
	기타	4,950	-	-	-	5,000	-
세출예산	합계	20,281,859	100.0	25,119,002	100.0	27,026,416	100.0
	인건비	16,593,346	81.8	17,941,116	71.4	19,999,291	74.0
	관리운영비	1,123,151	5.5	1,923,367	7.7	2,166,512	8.0
	사업비	2,565,362	12.6	5,254,519	20.9	4,860,613	18.0

1) 기타: 프로포절, 공동모금회 등 외부재원

2-2)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인력은 445명으로 1개 기관당 평균 17.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인력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91명으로, 전체인력 대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유율은 65.4%에 해당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비율은 2021년 73.2%, 2022년 67.5%, 2023년 65.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41>.

종사자의 근속기간 평균은 2021년 42.6개월에서 2023년 44.7개월로 2.1개월 증가하였으나, 근속기간의 중앙값은 2021년 29.0개월에서 2023년 24.0개월로 5개월 감소하였다. 근속기간의 평균은 증가하지만 중앙값이 감소하는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원의 근속기간 분포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인력의 불안정성, 이직률과도 관련이 높으며, 단기 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기초센터를 운영 형태별로 구분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직영형의 경우 2021년 대비 2023년 근속기간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는 10.2개월에 해당하며, 위탁형의 경우 6.7개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

<표 41>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단위: 명, 개월,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인력(12.31.기준)				396	424	445
근무 형태	합계			396	424	445
	비상근			13	13	12
	상근			383	411	433
직종 현황	합계			396	424	445
	정신건강 전문인력	소계		290	286	30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4	14	12
		정신건강 전문요원	소계	276	272	291
			간호사	70	62	63
			사회복지사	192	198	211
			임상심리사	14	11	13
			작업치료사	-	1	4
		일반인력	소계		106	138
	간호사		20	9	20	
	사회복지사		69	95	98	
	임상심리사		10	13	13	
	작업치료사		-	7	9	
	동료지원가		-	1	-	
	기타		7	13	2	
	근속 현황	근속기간 평균			42.6	42.3
근속기간 중앙값			29.0	27.0	24.0	
퇴사인력(1.1~12.31.)				75	82	97
이직 현황	전기말근로자			40	396	424
	연간퇴사자			75	82	97
	이직률			18.8	20.7	22.9
퇴사자 근속 기간	합계			75	82	97
	1년 미만			20	23	26
	1년 이상 3년 미만			38	34	43
	3년 이상 5년 미만			3	12	20
	5년 이상			14	13	8

1) 기타: 상담심리사, 행정요원 등

<표 42> 운영형태별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단위: 명, 개월,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인력(12.31.기준)		396	424	445	
운영형태	직영형	203	211	221	
	위탁형	193	213	224	
직영형	전체인력(12.31.기준)		203	211	221
	직종현황	소계	203	211	22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2	1
		정신건강전문요원	125	118	130
		일반인력	76	91	90
	근속현황	근속기간 평균	34.7	33.7	36.9
		근속기간 중앙값	30.0	22.0	22.0
	퇴사인력(1.1.~12.31.)		37	52	55
	이직현황	전기말근로자	217	203	211
		연간퇴사자	37	52	55
		이직률	17.1	25.6	26.2
위탁형	전체인력(12.31.기준)		193	213	224
	직종현황	소계	193	213	224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2	12	11
		정신건강전문요원	151	154	161
		일반인력	30	47	52
	근속현황	근속기간 평균	50.9	43.9	52.6
		근속기간 중앙값	33.5	24.0	28.5
	퇴사인력(1.1.~12.31.)		38	30	42
	이직현황	전기말근로자	183	193	213
		연간퇴사자	38	30	42
		이직률	20.8	15.5	19.7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중독 문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등의 개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중독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 중독질환자 관리사업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지역사회 중독정신건강증진사업, 청년중독관리사업, 노숙인 등 취약계층 관리사업,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3-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 현황

2023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입예산은 1,080,140천원으로 2021년 대비 19.6% 증가하였다<표 43>. 하지만 앞서 전체 기관 현황<표 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세입예산은 전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세입예산의 약 1.1%에 불과하여 타 기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079,156천원으로 2021년 대비 20.1%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항목 중 인건비 비율이 80.2%에 해당한다. 이는 지역사회재활기관(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중 가장 높은 인건비 비율에 해당하며, 최소한의 자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운용 결과로 보여진다.

<표 4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세입예산	합계	903,392	100.0	1,001,179	100.0	1,080,140	100.0
	국비	294,533	32.6	332,570	33.2	371,070	34.4
	시비	147,268	16.3	166,285	16.6	185,535	17.2
	구비	461,591	51.1	485,324	48.5	511,535	47.4
	기타	-	-	17,000	1.7	12,000	1.1
세출예산	합계	898,255	100.0	1,000,282	100.0	1,079,156	100.0
	인건비	730,345	81.3	780,311	78.0	864,996	80.2
	관리운영비	78,530	8.7	95,085	9.5	94,196	8.7
	사업비	89,380	10.0	124,886	12.5	119,964	11.1

1) 기타: 프로포절, 공동모금회 등 외부재원

3-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체인력은 19명으로 1개소당 평균 6.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비상근인력을 포함한 수치로 상근인력만 포함할 시 1개소당 평균 5.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4>.

2023년 전체인력 중 73.7%의 정신건강전문인력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유율은 63.2%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인력의 근속기간 중앙값이 46.0개월로, 지역사회재활기관 중 가장 높은 근속기간 현황을 보이고 있다.

<표 4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단위: 명, 개월,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인력(12.31.기준)			18	19	19		
근무 형태	합계		18	19	19		
	비상근		3	3	3		
	상근		15	16	16		
직종 현황	합계		18	19	19		
	정신건강 전문인력	소계		15	14	14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2	2	
		정신건강 전문요원	소계		13	12	12
			간호사		2	2	2
			사회복지사		10	9	9
			임상심리사		1	1	1
			작업치료사		-	-	-
		일반인력	소계		3	5	5
	간호사		-	-	-		
	사회복지사		3	4	5		
	임상심리사		-	1	-		
	작업치료사		-	-	-		
	동료지원가		-	-	-		
	기타		-	-	-		
근속 현황	근속기간 평균		38.6	47.6	58.1		
	근속기간 중앙값		33.0	34.0	46.0		
퇴사인력(1.1~12.31)			4	6	1		
이직 현황	전기말근로자		18	18	19		
	연간퇴사자		4	6	1		
	이직률		22.2	33.3	5.3		
퇴사자 근속 기간	합계		4	6	1		
	1년 미만		-	4	1		
	1년 이상 3년 미만		1	2	-		
	3년 이상 5년 미만		-	-	-		
	5년 이상		3	-	-		

4)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지역 자살문제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된다.

서울시는 광역형 자살예방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서 자살예방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자살예방사업안내에 따르면 광역형 자살예방센터는 지역의 자살예방시행 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연구 수행, 지역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에 대한 수행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예방과 개입,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세부 사업 등이 제시되어 있다.

4-1) 자살예방센터 예산 현황

2023년 기준 자살예방센터의 세입예산은 4,151,713천원으로 2021년 대비 34.3% 증가하였으며, 시비 83.8%, 국비 16.2%로 구성되어 있다<표 45>. 전체 지역사회재활기관의 세입예산 재원출처 현황에서 국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의 국비 구성비도 2021년 4.7%에서 2023년 16.2%로 11.5%p 증가하였다.

2023년 세출예산은 3,614,108천원으로 2021년 대비 29.5% 증가하였으며, 최근 3개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 현황은 2023년 기준 인건비 63.0%, 관리운영비 13.0%, 사업비 24.1%의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대비 2023년 가장 많은 증감률을 보이는 세출예산 항목은 사업비로 43.6% 증가하였다.

<표 45> 자살예방센터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세입예산	합계	3,091,449	100.0	3,982,760	100.0	4,151,713	100.0
	국비	143,760	4.7	475,877	11.9	673,049	16.2
	시비	2,947,689	95.3	3,506,883	88.1	3,478,664	83.8
	구비	-	-	-	-	-	-
	기타	-	-	-	-	-	-
세출예산	합계	2,790,077	100.0	3,417,777	100.0	3,614,108	100.0
	인건비	1,655,545	59.3	1,931,039	56.5	2,275,115	63.0
	관리운영비	528,222	18.9	442,332	12.9	468,522	13.0
	사업비	606,310	21.7	1,044,406	30.6	870,471	24.1

4-2) 자살예방센터 인력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살예방센터의 전체인력은 총 5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인력 대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유율은 34.5%로 전년대비 0.5%p 증가하였다. 전체인력 중 사회복지사가 43.6%(24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9.0%(16명) 순으로 직종별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46>.

2023년 자살예방센터 인력의 근속기간 중앙값은 10.0개월에 해당하며, 이직률은 66.0%로 퇴사자의 54.3%가 1년 미만 근속 퇴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자살예방센터 인력의 직종 및 근속·퇴사 현황(2021~2023) (단위: 명, 개월,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인력(12.31.기준)			38	53	55		
근무 형태	합계		38	53	55		
	비상근		1	1	2		
	상근		37	52	53		
직종 현황	합계		38	53	55		
	정신건강 전문인력	소계		38	19	20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	1	1	
		정신건강 전문요원	소계		37	18	19
			간호사		-	-	3
			사회복지사		37	17	16
			임상심리사		-	1	-
			작업치료사		-	-	-
		일반인력	소계		-	34	35
	간호사		-	1	4		
	사회복지사		-	31	24		
	임상심리사		-	-	3		
	작업치료사		-	2	3		
	동료지원가		-	-	-		
	기타		-	-	1		
	근속 현황	근속기간 평균		22.4	19.3	20.2	
		근속기간 중앙값		14.5	7.0	10.0	
퇴사인력(1.1~12.31)			18	31	35		
이직 현황	전기말근로자		40	38	53		
	연간퇴사자		16	31	35		
	이직률		40.0	81.6	66.0		
퇴사자 근속 기간	합계		18	31	35		
	1년 미만		6	16	19		
	1년 이상 3년 미만		5	13	14		
	3년 이상 5년 미만		2	2	1		
	5년 이상		3	-	1		

1) 기타: 통계전문가 등

4.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에서 퇴소하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의미하며, ‘지원주택’이란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의료·복지 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18년 자립생활주택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주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자립생활주택 28호, 지원주택 72호가 운영되고 있다.

1) 자립생활주택

1-1) 자립생활주택 기관 현황

자립생활주택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독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1인 1실의 주거공간과 함께 경제적 지원, 방문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운영법인은 2023년 기준 4개로 각 운영법인은 주택관리와 함께 입주자 대상 자립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자립생활주택은 1주택 2인 거주, 1인 1실로 운영되고 있어 2023년 기준 총 28호의 주택에 56명의 정원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은평구에 위치해있다<표 47>.

<표 47> 자립생활주택 기관 및 정원 현황(2021~2023) (단위: 개소, 호, 명)

구분		2021	2022	2023
운영법인		4	4	4
주택 호수	합계	28	28	28
	구로구	5	5	5
	금천구	9	9	9
	노원구	3	3	3
	동대문구	8	8	8
	은평구	3	3	3
입주 정원	합계	56	56	56
	구로구	10	10	10
	금천구	18	18	18
	노원구	6	6	6
	동대문구	16	16	16
	은평구	6	6	6

1-2) 자립생활주택 예산 현황

2023년 기준 자립생활주택 세입예산은 1,141,198천원으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의 자원투입과 기타예산(외부재원, 잡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세출예산은 1,078,873천원으로, 세출예산 중 사업비의 비율이 2021년 7.4%, 2022년 13.4%, 2023년 19.3%로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의 비율이 2021년 20.1%, 2022년 14.4%, 2023년 1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8>.

<표 48> 자립생활주택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세입예산	합계	1,099,209	100.0	1,099,773	100.0	1,141,198	100.0
	국비	-	-	-	-	-	-
	시비	1,077,335	98.0	1,088,173	98.9	1,100,729	96.5
	구비	-	-	-	-	-	-
	기타	21,874	2.0	11,600	1.1	40,469	3.5
세출예산	합계	990,542	100.0	1,008,115	100.0	1,078,873	100.0
	인건비	718,038	72.5	727,712	72.2	740,088	68.6
	관리운영비	199,456	20.1	145,053	14.4	130,540	12.1
	사업비	73,048	7.4	135,350	13.4	208,245	19.3

1) 기타: 외부재원 및 잡수입

1-3) 자립생활주택 인력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립생활주택 28개소 운영에 따른 인력은 21명으로, 전체인력 대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유율은 38.1%로 조사되었다<표 49>. 전체인력 중 동료지원가는 8명으로 38.1%에 해당하며, 자립생활주택에서 동료지원가는 비상근 인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 상담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표 49> 자립생활주택 인력의 직종 현황(2021~2023)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전체인력(12.31기준)				20	20	21
근무 형태	합계			20	20	21
	비상근			6	6	8
	상근			14	14	13
직종 현황	합계			20	20	21
	정신건강 전문인력	소계		8	7	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
		정신건강 전문요원	소계	8	7	8
			간호사	6	5	5
			사회복지사	2	2	3
			임상심리사	-	-	-
			작업치료사	-	-	-
	일반인력	소계		12	13	13
		간호사		-	-	-
		사회복지사		6	7	5
		임상심리사		-	-	-
		작업치료사		-	-	-
		동료지원가		6	6	8
		기타		-	-	-

1-4)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립생활주택 정원은 56명이며, 입주자는 52명으로 정원 대비 입주율은 92.9%로 조사되었다<표 50>. 최근 3년간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만큼 입주자의 이용기간별 분포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3년 입주자 중 1년 이상 입주자가 전체 입주자의 61.5%에 해당하는 만큼 다음 주거지로 이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자립생활주택 전체 입주자의 100%가 독립생활 욕구를 나타내는 만큼 자립생활주택 입주 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속적인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표 50> 이용기간별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수 및 독립생활 가능 여부 현황(2021~2023)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입주 정원			56		56		56	
입주자 수(12.31.기준)			39		40		52	
이용기간	합계		39	100.0	40	100.0	52	100.0
	1개월 미만		-	-	2	5.0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2	30.8	1	2.5	6	11.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5	12.5	3	5.8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0.3	14	35.0	11	21.2
	1년 이상 3년 미만		23	59.0	18	45.0	32	61.5
독립생활 가능여부	합계		39	100.0	40	100.0	52	100.0
	사례 관리자 평가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함	8	20.5	14	35.0	27	51.9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시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함	28	71.8	24	60.0	24	46.2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	3	7.7	2	5.0	1	1.9
	독립욕구가 있는 입주자		31	79.5	22	55.0	52	100.0

2) 지원주택

2-1) 지원주택 기관 현황

지원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혼자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인 1가구의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72호의 지원주택을 3개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주택 호수는 증가하였으나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운영법인은 3개소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법인이 평균 24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주택은 강동구, 금천구, 송파구,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다<표 51>.

지원주택의 경우 각 운영법인별로 입주자의 모임,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룸 1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는 거주 목적이 아닌 커뮤니티룸은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표 51> 지원주택 기관 현황(2021~2023) (단위: 개소, 호)

구분		2021		2022		2023	
운영법인		3		3		3	
주택호수	합계	53		72		72	
	강동구	17		17		12	
	금천구	12		12		19	
	송파구	-		19		17	
	양천구	24		24		24	

2-2) 지원주택 예산 현황

2023년 기준 지원주택 세입예산은 921,784천원으로 2021년 대비 50.3%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의 자원투입과 기타예산(외부재원, 잡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지원주택 세출예산은 907,691천원으로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비의 비율이 2021년 9.3%에서 2023년 15.9%로 6.6%p 증가하였으며, 예산액은 2021년 대비 2023년 298.1% 증가하였다. 관리운영비의 구성비는 2021년 13.7%에서 2023년 7.1%로 6.6%p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은 21.5% 증가하였다<표 52>.

<표 52> 지원주택 세입·세출예산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세입예산	합계	463,384	100.0	687,629	100.0	921,784	100.0
	국비	-	-	-	-	-	-
	시비	458,084	98.9	680,829	99.0	907,123	98.4
	구비	-	-	-	-	-	-
	기타	5,300	1.1	6,800	1.0	14,661	1.6
세출예산	합계	389,462	100.0	590,636	100.0	907,691	100.0
	인건비	299,730	77.0	486,604	82.4	698,058	76.9
	관리운영비	53,368	13.7	35,878	6.1	64,857	7.1
	사업비	36,364	9.3	68,154	11.5	144,776	15.9

1) 기타: 외부재원 및 잡수입

2-3) 지원주택 인력 현황

지원주택 인력은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4명으로 최근 3개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인력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비율은 2021년 75.0%, 2022년 60.0%, 2023년 57.1%로 감소하고 있다<표 53>.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원주택에서 근무하는 동료지원가는 3명으로 전체인력의 21.4%에 해당한다.

<표 53> 지원주택 인력의 직종 현황(2021~2023)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전체인력(12.31.기준)			8	10	14		
근무 형태	합계		8	10	14		
	비상근		-	1	3		
	상근		8	9	11		
직종 현황	합계		8	10	14		
	정신건강 전문인력	소계		6	6	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	-	
		정신건강 전문요원	소계		6	6	8
			간호사		4	4	4
			사회복지사		2	2	4
			임상심리사		-	-	-
			작업치료사		-	-	-
			일반인력	소계		2	4
	간호사			-	1	1	
	사회복지사			2	2	2	
	임상심리사			-	-	-	
	작업치료사			-	-	-	
	동료지원가			-	1	3	
	기타			-	-	-	

2-4) 지원주택 입주자 현황

지원주택 입주자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원 72명 중 69명 입주로 95.8%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표 54>. 전체 입주자 중 17.4%의 입주자가 1년 이상 3년 미만 입주자에 해당하며, 지원주택 운영이 2019년부터 시작된 만큼 향후 장기입주자에 대한 비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원주택 전체 입주자 중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입주자는 69.6%로 조사되었다. 지원주택이라는 지역사회 자립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보이는 입주자 비율이 70%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측에서의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입주자가 자립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 이용기간별 지원주택 입주자 수 및 독립생활 가능 여부 현황(2021~2023)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입주 정원			53		72		72	
입주자 수(12.31.기준)			40		59		69	
이용기간	합계		40	100.0	59	100.0	69	100.0
	1개월 미만		10	25.0	6	10.2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	2.5	6	10.2	2	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1	1.7	3	4.3
	6개월 이상 1년 미만		15	37.5	12	20.3	1	1.4
	1년 이상 3년 미만		14	35.0	33	55.9	51	73.9
	3년 이상 5년 미만		-	-	1	1.7	12	17.4
독립생활 가능여부	사례 관리자 평가	합계	40	100.0	59	100.0	69	100.0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함	5	12.5	4	6.8	14	20.3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시 일상생활을 원만히 수행함	28	70.0	49	83.1	52	75.4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	7	17.5	6	10.2	3	4.3
	독립욕구가 있는 입주자		38	95.0	28	47.5	48	69.6



III. 결론 및 고찰

III

결론 및 고찰

서울시는 정신건강 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오며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를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본 현황 자료에도 제시되었듯이 기관수 증가는 민간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관 수의 증가세는 다소 정체되어 있으며,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 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비중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력 전문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며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정신건강서비스가 민간 심리영역으로 확장되며 양적 성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4년 8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고, 11월에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며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보고서는 이렇듯 급변하는 정신건강 환경 속에서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의 현황과 추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정신건강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현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따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지역별 격차는 존재한다. 권역별, 자치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불균형하며, 기관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권역별 인구특성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다양한 요인에 의한 차이일 것이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별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 지속성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양적인 성장,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인력과 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특히 공공서비스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 공공 부문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IV 참고자료



IV. 참고자료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23.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전국 정신건강관련 기관현황집.
- 박상미, 임태환, 임혁 & 박해금. (2021). 정신건강서비스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 연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4).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2023) 분석 보고서.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4). 정신의료기관 현황(2023)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전진아 & 강혜리. (2020).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82, 30-42.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 2024년 자살예방사업 안내.

2023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보고서

발행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획자: 데이터정보운영팀

전화: 02-3444-9934

팩스: 02-3444-9961

홈페이지: <https://seoulmentalhealth.kr>

제작업체: (주)디자인위드

도서목록번호: 가2024-13

비매품

ISBN (Print): 979-11-6838-107-0

ISBN (Online-PDF): 979-11-6838-108-7